



어리석은/우리의 질문에
성경이 답한다.

4강 복음서 속의 우리의 질문에 성경이 답하다

[오늘 우리의 질문]

💡 우리의 질문1.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14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14-15

💡 우리의 질문1. 그들은 누구인가?

2. 비유에만 그런 것인가? (다른 본문에 나오는 곳은 없는가?)

3.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는?

4. 정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

5. 그럼 어떻게 이런 영적 무지 증상을 치유할 수 있는가?

📖 성경의 답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마 13:2-3, 10 새번역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표징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까닭을, 이사야가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무디게 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나에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요 12:37-41, 새번역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 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숙내를 내놓았다.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헤어질 때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한 마디 하였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 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행 28:23-27, 새번역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마음이 무디어지고) ...” 마 13:15, 개역개정

“당신들은 그 큰 시험과 굉장한 표징과 기적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까지,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신 29:1, 새번역

“9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허망한 자들이다.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증언하는 자들은 눈이 먼 자들이요, 무지한 자들이니, 마침내 수치만 당할 뿐이다. 10 아무런 유익도 없는 신상을 만들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 17 불을 때고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 곧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숭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며 ‘나의 신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빈다. 18 백성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볼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 그런 사람에게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다. 고작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나무의 반 토막으로는 불을 피워, 그 불덩이 위에 빵을 굽

고 고기를 구워 먹었지. 불을 때고 남은 나무로는 가증한 우상을 만들었지. 이제 나는 그 나무 토막 앞에 절한다' 하는구나.” 사 44:9-10,17-19, 새번역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시 115:4-8,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호미한 영을 주셨으니, 오늘까지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로마서 11:8, 새번역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짜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백 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결실을 낸다.” 마 13:18-23, 새번역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신 30:6, 새번역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겔 36:26-27, 새번역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롬 2:29, 새번역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전 12:3

❗ 이 말씀의 핵심은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닮아 있고,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이들이 듣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뿐만 아니라 표적도, 하나님 나라 복음도 듣지 못합니다. 이런 영적 무지 현상은 마음의 할례, 즉 성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다음 강의 : 어리석은 질문 」

- ☹ 어리석은 질문1. 유월절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눅 22:7-20)
- ☹ 어리석은 질문2. 예수님이 정말 구름 타고 오실까? 그가 타고 오시는 구름은 어떤 구름일까?(마 24:30)
- ☹ 어리석은 질문3. 왜? 안식일이 아닌 일요일에 예배하나요? (마 12:8)

🗣️ 우리의 질문을 보내 주세요.



문자 / 카톡 / 댓글
4월 20일(주) 부활주일까지